

고양 차이나타운 올 하반기 첫삽 (경인일보 2004.02.10)

고양 차이나타운 올 하반기 첫삽

그동안 과도한 상업성 등으로 인해 백지화 위기까지 몰렸던 고양 차이나문화타운조성 사업이 최종 합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 착공될 전망이다. 고양시와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는 9 일 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고양 차이나문화타운 조성사업의 개발조건에 최종 합의하고 상반기 중 계약을 체결한 뒤 설계·행위허가 등 각종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서울차이나타운이 고양시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국제전시장 지원시설부지 9 개 필지중 처음으로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건설사업소 송이섭 과장은 “서울차이나타운에서 지난 6 일 그동안 고양시가 제시해 온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공식 통보해 왔다”며 “큰 쟁점이 해결된 만큼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의에 따라 고양 차이나문화타운은 전체 부지 2 만 1 천여평 중 1 만 4 천 500 여평은 감정가에, 특급호텔(312 실) 부지(6 천 500 평)는 관광진흥법·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조성원가에 각각 매각된다. 또 중국전통정원 부지(6 천 500 평)는 BOT(Build Operate Transfer)방식으로 건립돼 20 년 후 시에 기부채납되고 주거시설은 여전 변화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차이나타운은 5 천억원을 들여 오는 2009년까지 2 단계로 나눠 차이나문화타운을 건립할 계획이며, 내년 10월 세계화상(華商)대회 개최에 맞춰 우선 중국 문화의 거리(4 천평)와 중국 전통정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와 서울차이나타운은 지난 2002년 4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가계약까지 맺은 상태였으나 차이나타운측의 대규모 공동주택 등 과도한 상업성과 토지의 조성원가 공급요구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 백지화 위기에까지 몰렸다.

한편 한국국제전시장은 일산구 대화동 2306 일대 23만여평에 2013년까지 3 단계로 나눠 건립되며, 내년 3월말 완공돼 5월 세계모터쇼가 예정된 1 단계 전시시설(1만6천평)은 현재 38%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53>